

# 濟州島 民家の 住居環境에 關한 研究

—吾照 마을의 空間的 特性을 中心으로—

洪宗守\* 梁澤訓\*\*

\*慶尙大學校 大學院(博士過程) 林學科

\*\*漢陽大學校 大學院(博士過程) 建築工學科

A Study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Housing in Cheju Island.

—Entering Around the Spatial Peculiarity of the Village of Ojori—

Hong, Jong-Su\* Yang, Taek-Hoon\*\*

\*Dept. of Forestry of the Graduate School(Doctoral Course) of Kyungsang University.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of the Graduate School(Doctoral Course)of Hanyang University.

## ABSTRACT

The traditional housing of Cheju Island has been steadily researched, but from the point of an environmental view which has been neglectly treated all the while, the formative process of the housing and its relationship to the structure of a village are studied, so the writer summarized the relation to the housing type.

To study the peculiarity of the physical space, a type of a way, an element of the spatial structure, by stage and a type of the arrangement of the residential space are researched and analyzed, and to understand the plane peculiarity, the distribution of the plane type has been studied.

In consequence, the housing and the structure and the form of the village have an organic relation each other and have been made under a very diverse and mixed background, we can find. Especially, the ele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acts as an important element which decides the type of life and the residential type. The arrangement of buildings is gradually free from the traditional type; but a traditional type of "Three-Room House" is kept well in spite of a change of the plane type.

## I. 序 論

60年代 以後 傳統에 대한 命題가 중요한 課題로 등장함에 따라 住居分野에서도 우리의 것을 찾으려는 研究가 비교적 활발히 進行되었고 최근 괄목할 만한 成果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濟州島 地方의 傳統民家에 關한 調查研究도 1970年代 以後 꾸준히 進行되어 많은 民家들이 採錄, 報告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研究는 機能的 形態의 인 接近에 焦點을 둔 것이었고 文化的, 歷史的, 環境的 接近方法 즉, 全環境의 인 觀點에서 民家の 形成過程과 聚落構造와의 相互關係를 다룬 것이 없는 실정이다. 民家와 聚落의 構造 및 形態는 서로 有機的인 關係를 가지며 매우 多樣하고 複合的인 背景下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들에 關한 綜合的인 接近은 매우 중요하다고 思料된다. 調查地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日帝時代와 4.3事件을 거치고 近代化라는 명목하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住宅改良事業등으로 濟州島 民家の 原形 역시 무수히 파괴 되었으며 마을 全體가 原形을 간직하고 있는 곳도 거의 없어져 버렸다.

### [丑-1] 調查의 概要

No.	調査名	調査方法	調査内容	調査對象	期間
I	基礎資料調査	文獻調査 調査地域 訪問	調査對象地域 에 대한 全般 的 性格把握  名 要因들의 關聯性 把握	南濟州郡과 北濟州郡 5개 마을	'89. 10. 15- '90 3. 20
II	豫備調査	調査對象 家屋을 訪問하여 觀察調査 및 inter- view 調査	調査民家에 대 한 性格把握 具體的인 check-list 作成 調査 範圍 修正, 補充	3개 마을 300世帶	'90. 3. 25- 5. 3
III	本調査	生活調査 및 觀察 調査 實測調査 面談	生活實態調査 家族構成 配置 및 住空 間實測 人文社會 및 自然環境 調査	吾照里 76 世帶	'90. 5. 4- 6. 30

이에 本 研究는 濟州島 自然部落 中 비교적 그 原形이 잘 保存되어 온 城山邑 吾照里 同族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聚落構造의 形成要因과 空間의 特性을 綜合的으로 糾明하려는 目的으로 시도 되었다. 研究는 2次에 걸친 豫備調査와 5次에 걸친 本 調査를 통하여 마을의 自然環境 및 立地條件 등이 調査되었고 配置 및 調査對象家屋의 平面 등이 實測되었다. 또한 文獻調査와 住民들과의 面談을 통하여 마을의 歷史, 傳說, 儀禮등의 人文環境 要因이 採錄되었으며 마을형성기의 史的 背景을 考察하였다. 한편으로 마을의 空間의 特性을 分析함으로써 마을의 立地 및 民家の 形態構成에 대한 特性을 評價하였다. 本 研究의 目的 및 方法, 內容, 對象期間의 概要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 II. 調査마을의 概要

### 2-1. 自然環境

吾照 마을은 濟州島의 동쪽 끝 해안가에 자리잡은 곳으로서 濟州市와 西歸浦에서 동쪽으로 각각 43Km 떨어진 거리인 北緯 33° 20'~29', 東經 121° 88'~126° 58' 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일대는 地表가 낮은 용암지대가 分布되어 있고 이러한 현상은 일주도로를 지나 산쪽으로 갈수록 심하여 農土는 각박하고 다랑이<sup>1)</sup>들이 많다.

마을의 氣候는 따뜻한 海洋性 氣候이나 漢拏山의 影響으로 日氣變化가 심하며 年平均 氣溫은 15.0℃로서 濟州市(15.1℃)와 西歸浦(15.8℃)보다 낮은 편이나 濕度는 78%로 濟州市(74%)와 西歸浦(73%)보다 다소 높다. 年平均 降水量은 1693.5mm로서 濟州市(1440.0mm)에 비하면 많은 편이나 우리나라 最大 降雨地 中の 하나인 西歸浦(1718.2mm)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年平均 風速은 3.3m/s로 濟州市(4.2m/s)와 西歸浦(3.5m/s)보다 낮은 편이나 8-9월에 濟州 全地域을 휩쓰는 태풍으로 農作物이나 建築物에 피해가 많으며 最大風速은 濟州市 36.1m/s, 西歸浦 26.7m/s, 城山 24.5m/s이다<sup>2)</sup>.

註 1) 매우 좁고 작은 논들을 말한다.

2) 제주 측후소 제공 - 한국 기후표(1951-1980) - 중앙 기상대 - 한국 기후표(1973-1982) - 중앙 기상대

이처럼 海洋性 氣候가 뚜렷한 이 地域의 氣候는 바람이 그 特性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바람은 돌과 더불어 가장 뚜렷한 文化形成의 拘束力으로 作用했음이 住民의 意識構造와 生活狀態에서도 確信이 可能하며 특히 住居形態의 物理的 特性은 全部 바람의 影響이라 할 만큼 많다. 마당을 中心으로 家屋을 別棟으로 求心配置한 것, 높은 돌담을 타리와 相對的으로 外기노출 表面積이 작은 양통형 平面이 정착되어 있는 것, 垜地가 道路보다 낮게 선택된 것, 木骨構造 外部로 쌓은 石造, 덧벽, 창호를 보호하기 위한 板張, 덧문 등은 모두 바람에 적응하기 위하여 選擇된 지혜로 보이는 것들이다.

한편 調查地域의 地形, 地勢는 제주섬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漢拏山을 中心으로 하여 완만한 경사로 내려와 海岸에 이르고 있으며 住宅의 지붕선도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강한 비바람에 적응하면서 漢拏山의 地形, 地勢와도 調和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自然環境의 要因은 吾照 마을의 生活環境 및 住居環境 構成에 중요한 要因으로 作用한다고 생각된다.

## 2-2. 人文環境

吾照 마을은 日帝治下期인 1915年 道制의 실시에 따라 全羅南道 濟州 旌義面에서 1933年 城山面으로 改稱되고 1946年 全羅南道에서 分離, 道로 昇格과 동시에 濟州道 南濟州郡 城山面이라 稱하다가 1980年 城山邑으로 昇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名稱은 근처에 있는 城山日出峰에 아침

해가 떠오르면 먼저 나에게 비친다는 뜻에서 吾照里라 呼稱하게 되었다.

현재 吾照 마을은 總 271家口, 1320名 정도의 人口가 살고 있으며, 姓씨는 康, 高, 吳, 金, 洪, 玄, 宋, 朴, 夫, 韓의 10代 姓氏로 構成되어 있고 結婚은 마을 안에서 通婚하는 경우가 반수나 되며 1930年代부터 海女의 물길 등으로 釜山에 進出하였던 人口가 현재는 100여戶의 大集團이 되어 影島를 中心으로 居住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리고 生業의 경우 일부 世帶主는 公職에 從事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半農半漁의 形態를 취하고 있으며 耕地面積은 農地 619.5ha, 林野 245.2ha, 垜地 12ha, 田 242.2ha이다. 또한 마을의 傳統的 儀式 및 信仰을 살펴보면 陰曆 丁亥日에는 마을의 祭堂에서 部落民의 福利를 기원하는 儒敎式 部落祭인 포제를 올린다. 祭의 規模와 準備, 祭官의 選出 등은 마을회의에서 決定하며 祭官들은 祭를 지내기 3日前에 金줄<sup>3)</sup>을 치고 合宿을 하여 不淨을 막고 沐浴재계하여 祭祀지내기 전날 祭壇으로 올라간다. 祭의 順序는 존폐례-초헌례-독축-아헌례-종헌례-철번두-망료위의 順으로 進行되고 祭가 끝나면 飲福하고 돼지고기는 노인몫이라 해서 적꼬지에 고기를 몇 점씩 꿰어서 돌리고 祭官들도 分肉하여 나눠 먹는다. 그리고 포제외에 별제는 軍人이나 海外에 나간 사람들을 위하여 성금을 모아 6.25以後부터 새마을운동이 일기 전까지 지냈던 部落祭이다. 民間信仰인 영등굿은 陰曆 2月 15일에 하는데 이는 잠수나 어부들의 安寧과 海產物의 풍등을 기원하는 굿으로 초감제-요왕맞이-씨드림-지아뵈-배방선의 順으로 進行되고 정월

註 3) 벧집을 꼬아서 길게 이은 줄로써 집의 출입구(대문)에 매어 놓는 것으로 미신적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줄을 매어 놓음으로써 귀신을 쫓는 등의 그 집안을 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으며 가족을 제외한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타인 역시 금줄이 쳐져 있는 집은 당연히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4) 다섯군데의 당은 아래와 같다.

- 『진귀니물당』-제일은 매달 7일, 17일, 27일로 일릿당이라고도 하며 옛날에는 당굿을 크게 했었다고 한다.
- 『죽지당』-죽지할당당이라고도 하며 이당을 잘 모시므로 죽지 않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는 아이가 없었으며 또 아이가 아프거나 부스럼이 났을때 아이를 당에 데리고 가서 형질으로 닭아 그 형질을 당에 걸쳐두면 잘 낫는다고 한다. 이당은 제일이 없어 아무때나 다니고 마을 중앙에 있어 사실상 오조리의 분향당의 기능을 하고 있다.
- 『쌍월당』-참봉선왕을 모시는 도채비당으로 제일은 뚜렷하지 않으며 이당을 잘 모셔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잘 안모셔 패가망신한 집도 있다고 한다.
- 『메누리당』-어느 집 며느리가 물을 건너다 빠져죽은 곳을 메누리도리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죽은 원혼을 위하여 당이 생겼다고 하며 제일은 매달 열 이틀날이다.
- 『빛제동산당』-마을을 실촌한 은진송씨의 가족당으로 풍랑으로 잃은 아들의 가족 옷에 혼을 모셔다 빛제동산 봉우리의 암석 있는 곳에 모셔 원혼을 달랠으로써 생긴 당이라고 한다.

대보름 날에는 집안의 無事·安寧을 비는 조왕제를 지낸다. 또한 部落內에는 다섯군데의 堂<sup>5)</sup>이 있는데 본향당인 「울렛모루하로산당」<sup>6)</sup>은 이웃마을인 水山里에 있는 관계로 生業이나 姓氏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본향당을 모시고 있다.

이러한 民間信仰은 民族의 集團思考 行爲의 기본이 되는 巫俗信仰으로 宗教라기 보다는 神話의 形態로서 國家의 發生과 함께 存在하여 오랜 傳統속에서 生活樣式의 일부로 정착되어 文化의 止變을 形成시켜 온 支配的 思想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추구했던 思想은 가장 原形의인 것이다. 특히 濟州의 巫俗은 현재까지도 거의 原形 그대로 存在하여 住民의 生活속에서 機能하고 있으며 住居內에는 神의 位階에 따른 각자의 領域이 있고 神의 性格도 職能에 따라 位階가 부여되며 이 家內神들 중에 上位의인 門前(門神)을 제외한 모든 巫俗儀禮는 女性에 의하여 집행된다. 그리고 家內神은 몸채인 안채에만 존재하고 안채에만 宗教的 意味를 가진다.

따라서 巫俗信仰은 濟州文化의 原始的,土着的 요소라 할 수 있으며 先代로 부터 自然的으로 發生된 이 原始宗教 形態는 그 속에서 生存해 가는데 자신과 家族 그리고 그들의 共同體를 依托하는 필수적 方便으로 絕對性을 가지며 生活의 母體가 되는 住居와는 특히 密接한 關聯을 맺고 있고 濟州島民의 意識을 支配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Ⅲ. 마을의 形成要因 및 過程

聚落의 形態 및 그의 空間의 特性을 糾明하기 위하여 聚落의 形成要因을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聚落은 어느 시기에 누구에 의해 形成되었으며 왜 그곳에 立地를 하게 되었는가에 따라 聚落의 構造뿐 아니라 家屋의 立地 및 形態에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現存하는 同族마을은 대개 壬辰倭亂

으로 말미암아 폐허화된 村落社會를 再建했던 150年間에 形成된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며 그 形成過程에는 대개 名臣, 賢相, 碩學, 巨將 등을 그 계보의 出發點으로 하여 權威 있는 자, 富裕한 者의 집을 中心으로 結合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혼란한 政爭속에서 官의 힘이 크게 미치지 않는 곳에 터전을 마련한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本 研究의 對象인 오조 마을은 대부분 形成期에 聚落의 基本 틀이 설정된다고 보아 이 마을 形成期의 史的 背景부터 考察하였다.



〈그림 3-1〉 調査 마을의 全景

調査地인 吾照 마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짐수막」·「병문기」<sup>7)</sup>·「연디밧」·「창터왓」<sup>8)</sup> 등의 地名으로 보아 과거에 이 마을이 군사상의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으며 여러 記錄 傳說 등을 통해 볼 때 이 마을의 設村도 아마 風水地理가 성행하던 고려 삼별초의 난이 있었던 때부터 形成된 歷史가 깊은 마을임을 추측할 수 있다.

註 5) 오조리의 본향당으로 수산, 신양, 성산, 은평, 고성, 오조리의 여섯마을이 모시는 공동의 부락당이며 제일은 신년과세(1월 15일), 영등송별제(2월 13일), 백중제(7월 8일), 시만국대제(11월 14일) 등이다.

6) 고려시대 삼별초와 관계있는 지명으로 『짐수막』은 김수장 장군의 막사에서 유래된 듯하며 『병문기』는 병사들 막사의 출입문에서 전해진 지명인 것 같다.

7) 안가름일대의 지명으로 『연디밧』은 연대의 밑에서, 그리고 『창터왓』은 창고터의 뜻인 것 같다.

그리고 안가름<sup>8)</sup>의 ‘고장남밭’에는 濟州夫氏 도선묘(1484 : 성종 14年)가 있으며 이 무덤에서 발두어 개를 사이에 두고 恩津宋氏의 입도조 묘가 있고 그의 자손은 지금까지 吾照里에서 11-12代를 살아오고 있다. 또한 남차룩에 의하면 1600年代에 吾照浦에는 漁店 10여戶가 있었는데 겨울과 봄에는 이곳에서 살다가 여름에는 떠나갔다는 記錄으로 미루어 海岸 부근에 임시 居住하다가 농사철이면 안가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옛마을인 안가름의 形成<sup>9)</sup>을 적어도 450年 以前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吾照 마을이 同族마을로 뿌리내린 것은 壬辰倭亂을 前後하여 海岸가에 倭賊이 자주 出沒하므로 편리한 地形을 찾아 現在의 位置로 옮겼을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關聯하여 마을의 立地를 살펴보면 이곳이 은신 피난처로서의 機能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마을 村老들의 말에 의하면 마을의 地形이 미녀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죽은 남편의 시체 앞에서 울고 있는 형세 즉, 옥녀산발형<sup>10)</sup>이라고 風水地理의인 傳說이 내려오고 있으며 동쪽바다를 보면 「소섬」<sup>11)</sup>이 누워 있고 동남쪽에는 바다로 뻗어나간 灣인 城山浦와 日出峰이 마주보고 위치해 있어 마을에 아늑한 분위기를 形成해 주며 특히 마을 동쪽 가까이에 있는 해발 45m의 石山봉<sup>12)</sup>은 西北風을 차단하여 피해를

막아준다. 또한 吾照리는 바닷가의 외진 마을이면서 1901年 聖敎亂<sup>13)</sup>과 1948年 4.3事件<sup>14)</sup> 그리고 해난에 의한 事故<sup>15)</sup>등으로 인명피해가 적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마을에 큰 상처가 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찍 寡婦가 된 婦人들의 수가 많으며 젊어서 寡婦가 되어도 으레껏 守節할 것으로 알았으며 그 傳統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漁村마을인 만큼 어장분쟁도 잦아서 이웃마을인 城山, 新陽, 始興里 등과 수차례의 어장다툼도 있었으며 일부 어장을 新陽里와 始興里에 떼어주는 아픔도 겪었다. 한편 聚落立地에 影響을 주는 要因으로는 社會文化的인 여건과 더불어 經濟的인 여건의 充足은 必須的이다. 특히 土質이 좋고 生産을 위한 넓은 耕作地를 주위에서 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마을은 이러한 요구를 充足시키기 보다는 漁村의 特性인 漁業에 從事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主耕作地로서 마을 동북쪽 일대의 밭과 마을 남쪽 城山 양어장 쪽의 논들이 있긴하나 땅이 비옥하지 못하며 또한 病蟲害 등으로 現在는 거의 벼농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生業은 주로 바다에 依存하고 있으며 現在 이 마을의 어가는 91家口로 漁民은 男子 120名, 女子 175名으로 모두 295名이고 이중 129名의 잠수회 회원이 속해 있다. 이들은 또한 바다의 特殊性으로 인해 共同作業<sup>16)</sup>의 形態도 갖추고 있으며

註 8) 관가름이라고도 하며 과거에 수전소와 아울러 관가가 있었던 곳으로 성곽의 흔적과 고려자기, 조선자기의 파편, 기와의 문양 등이 출토된 바 있으며, 지금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과거에 고려를 장악한 몽고가 제주를 지배하기 위해 세웠던 쌍성총관부의 위치가 이 일대라는 의견도 있다.

9) 오성찬, 제주의 마을 오소리, 도서출판 반석, 1990, p 14 및 23-26에서 근거함.

10) 石山봉을 두고 이른 말로써 그 형세가 마치 아름다운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고있는 모습과 같다는 뜻에서 옥녀산발형이라고 하였다.

11) 행정구역상으로 북제주군 우도면에 속해 있으며 성산포에서 2.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섬으로 그 형상이 소를 닮았다하여 소섬(牛島)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약 3,200명 정도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농반어에 종사하고 있다.

12) 옛날 왜구가 침범해 올 때 노람지를 덮어 마치 군량미처럼 보이게 하여 왜구들이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났다는 전설과 함께 군사적인 요충지임과 동시에 제주도의 다른 어촌과는 달리 마을 전면(바다쪽)에 이 마을을 상징하는 石山봉이 있고 마을과 石山봉 사이 주거지와 연결된 공간이 형성되므로 추후 양어장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며 서북풍을 차단해 주기도 한다.

13) 송원길, 송상보 형제등 천주교 신자 5명이 민란군에 잡혀 죽은 사건을 말한다.

14) 4.3사건 당시에는 입산군인이 가담했던 이 마을 강보씨에 연루되어 그 가족이 몰살되기도 했고 공비침입시 방비용으로 지급되었던 다이나마이트가 오인되어 10여명의 인명이 하루아침에 처형되는 사건도 있었다.

15) 1921년 음력 2월의 하룻밤 사이에 어선 4척이 파도에 휩쓸려 어부 24명이 몰사했던 사건으로 매년 음력 스무나흘날은 이 마을 24인에 대한 제사가 지내진다.

16) 마을 주변의 바다는 알아서 어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배를 타고 나가 물질을 하는 소위 뱃물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채취하는 해물은 전복, 오분자기, 소라, 해삼, 성게, 문어 등이며 돛, 미역, 천초등의 해조류도 채취한다.

방파제, 선착장, 어구창고, 어촌계 사무실 등의 共同施設을 保有하고 있으며 농사보다는 漁業活動에 적합한 주변환경을 이루고 있다. 便宜施設로는 1967年 電氣施設이 設되었으며 1970年 수도시설도 設했다.

以上의 여러 環境의 要因의 考察을 통해 住居型과 關連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 人間은 그들의 生活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장 알맞은 場所를 찾아 定着하게 되는데 우리 先祖들은 絶海의 孤島라는 限界性, 風災, 水災, 旱災, 척박한 土質 등 불리한 環境條件을 극복하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 環境에 順應하는 지혜를 터득했고 勤勉, 儉素, 節約, 自立, 協同하는 精神이 形成되었으며 이러한 要因들은 그들의 生活에 알맞은 空間을 形成하게 된 基底가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2) 農業中心의 社會에서 富의 基本은 土地이며 이것이 生産 및 生活의 手段이 되었으나 과거 濟州의 土地는 農業生産에 불리한 火山地로서 우리 先祖들은 生活을 保障하고 生産의 增大를 위하여 合理的인 農業經營形態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家族共同勞動을 效率性 있게 執行하려고 했으며 이러한 原因이 家族構造 및 住居型에 影響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3) 住居空間 構成에 影響을 준 要因으로 民間信仰을 들 수 있는데 땅을 인식함에 있어서도 땅은 단순한 自然的空間이 아닌 神話의 空間이며 살아 있는 空間으로 이해되고 있고 建築物 또한 단순한 物理的 施設이 아닌 살아있는 生命體로서 이해된다. 이러한 思想은 집을 지을 때 土地神에게 告한 다든지 지은 후에도 家神을 모시는 등 住居空間構成에 直接, 間接으로 많은 影響을 주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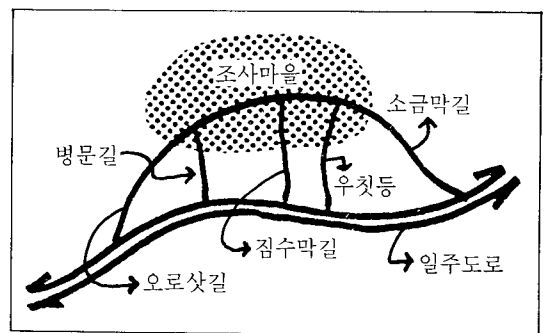
4) 土薄한 生活環境 머슴의 不在, 양반문화의 희박 내지 결여, 經濟的 貧困, 父母와 子息이 모두 勤勉하지 않으면 生活할 수 없는 特殊한 環境 등의 要因이 濟州島의 核家族化 原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核家族形態에서 나타난 住居型이 「안. 밖거리형 살림집」<sup>17)</sup>이라고 생각된다.

5) 濟州의 강한 비바람 등 氣象條件은 돌담으로 구획된 울타리라는 領域을 만들게 되었고 住宅의 平面 및 配置形態에 制限을 두었다. 따라서 平面形態는 一字型을 취하여 누수방지, 시공비 절감을 기하고 마당을 中心으로 別棟으로 集合配置하여 外部氣象刺戟으로 保護를 받아 비교적 쾌적한 環境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別棟配置의 必要性이 안. 밖거리형 살림집을 만든 原因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 IV. 物理的 住居環境의 特性

마을의 全體의인 配置는 제주섬을 우회하는 일주도로로부터 바다쪽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入口가 얇은 구릉으로 가리워져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家屋들은 마을 안길<sup>18)</sup>을 中心으로 자연스럽게 位置하고 있고 대부분의 同族마을이 集村形態를 이루고 있듯이 呑照 마을 역시 集村形態를 維持하고 있다.



〈그림 4-1〉 立地에 따른 길의 體系

그리고 대다수의 家屋은 1960年代 以後 改修, 改築 등이 進行되어 이루어진 建物들로서 傳統空間에 비하여 室內面積이 擴大되고 있다.

註 17) 규모가 다른 두채의 건물에서 각각 침식과 생산경영을 두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父와 子의 가족중 가족수에 따라 안. 밖거리의 거주자가 결정되는 제주 특유의 가족제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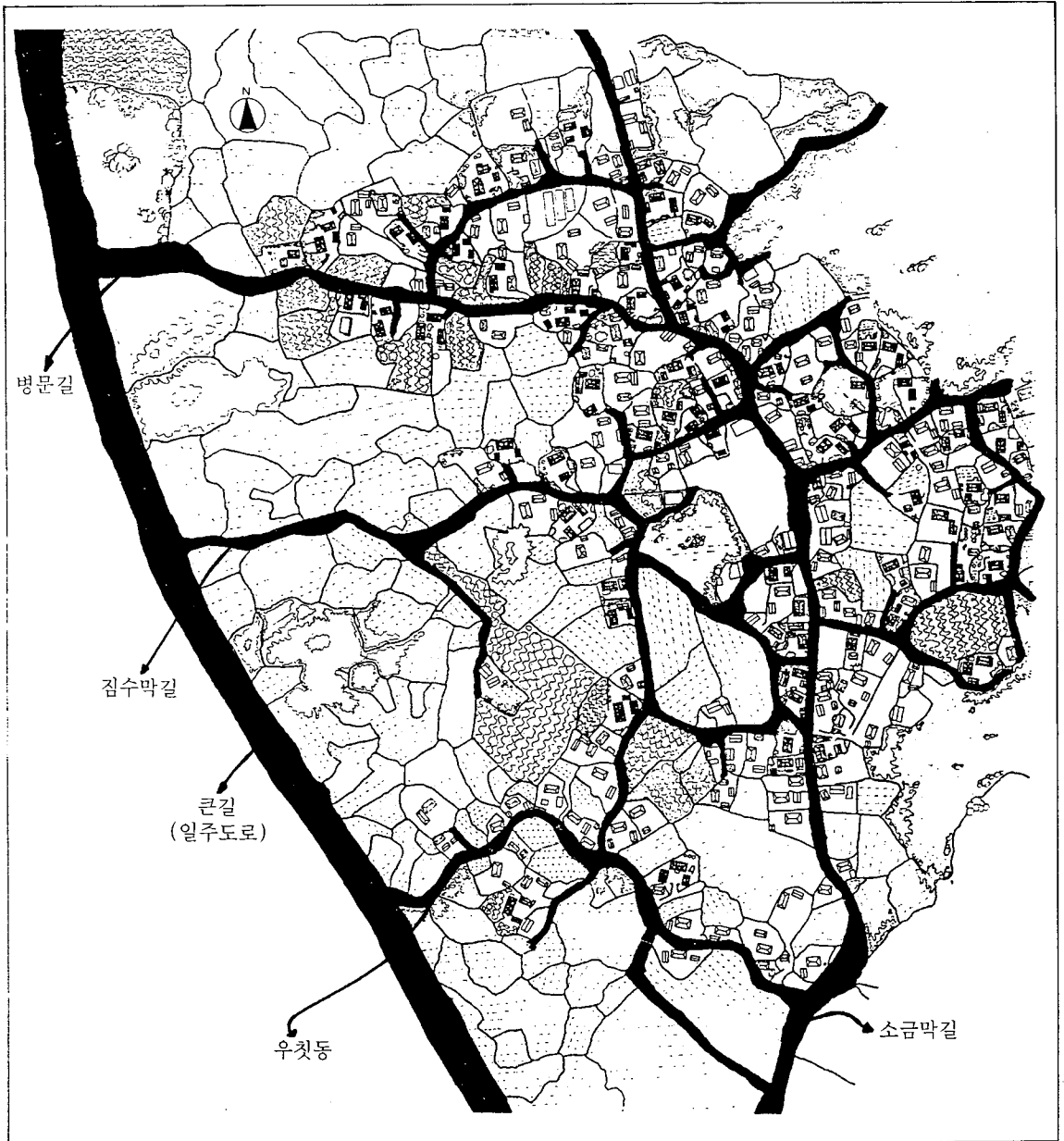
18) 마을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가장 공공성이 큰 길로써 마을회관등의 공공 공간이 설치된다. 안길에서 직접 집으로 진입하거나 새길과 막다른 골목으로 연결되기도 하며 실생활이 활발히 일어나는 마을의 중심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調査된 76世帶를 中心으로 空間的 特性을 分析하였다.

4-1. 空間의 要素

길은 마을의 空間을 構成하는 重要한 要素로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의 軌跡을 따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는 마을 機能의 핏줄이 되는 것이다. 마을이 길은 發生的으로 民家와 民家 卒 마당이 連結되어 形成되기도 하고 民家와 耕作地 혹은 民家가 없는 단 하나의 通路가 인접하는 마을과의 連結路가 되기도한다. 이러한 길의 體系는 地形, 地勢의 諸條件과 더불어 여러모로 變化하는 領域을 우리



<그림 4-2> 길의 體系와 民家の 分布

의 環境內에 만들어낸다.

푸름 마을<sup>19)</sup>은 海岸의 灣을 향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어있는 병문질을 中心으로 오르삿길, 짐수막길, 우치등 소금막길이란 다섯군데의 어귀<sup>20)</sup>를 통해 마을 안길로 連結되고 안길에서 다시 셋길<sup>21)</sup>과 골목길<sup>22)</sup>을 통하여 民家の 마당에 이르게 된다. 이들 通路들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으로서 마을 안길은 自然的 地勢와 極히 민감한 反應을 보이면서 휘어져 있고 住居의 配置狀態와 밀접한 關連下에 있다. 즉, 自然的 地勢에 順응하여 垵地를 조성하고 여기에 적응하는 棟을 配置하였으며 이러한 聚落과 마을의 길과의 대체적인 法則性은 門前 通路를 確保하기 위하여 通路를 따라 配列된 民家들이 主通路에서 골목을 만들어 유도하는 相關性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道路는 한 지점에서 서로 交叉하지 않으며 나무의 모양과 같이 서로 엇갈려서 여러 갈래의 길로 나누어지고 마을 안길과 住居單位와의 關係는 樹木의 秩序처럼 規則性이 높은 有機性을 보여 주는데 마을의 길은 줄기와 가지에 그리고 民家는 그 잎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調査마을의 外部空間을 構成하는 要素를 位階別로 區分하여 綜合하면 그림과 같이 큰길<sup>23)</sup>, 어귀, 안길, 셋길, 골목으로 나누어지며 이 길들은 日帝時期와 새마을 事業 등으로 擴張, 變化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

다.

이들 空間은 位階에 따라 分節的 構成을 하고 있어서 안과 밖의 區分이 明確하다. 마을의 全體的인 空間은 윗동네, 큰동네, 논동네, 잉물동네, 공팔동네, 앞동네등 6개의 동네로 區分되어 있으며 각 동네 단위에는 相扶相助하는 상여집, 쇠집 등의 계와 몰고래터, 우물터로 構成되어 있다. 몰고래터는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우물터의 샘은 수도 補給 이후 거의 消滅되고 있으나 冠婚喪祭나 生業에 必要한 여러가지 傳統的인 계등은 現在도 옛관습이 각 동네 단위로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特徵은 居住地에 대한 認知度와 이웃 集團間의 結束力을 높이는 要因이 되기도 하며 外部에 대한 마을의 강한 領域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4-2. 住居空間의 配置類型

調査地域內 民家建物の 一般的인 配置形態는 불규칙한 形態의 垵地안에 「안거리」, 「밖거리」, 「모거리」<sup>24)</sup>, 「헛간」, 「창고」 등으로 호칭되는 여러 채의 建物들이 作業마당을 中心으로 複雜多樣하게 配置되어 있으나 자세히 觀察해 보면 「一字型」, 「二字型」, 「ㄱ字型」, 「ㄷ字型」 등의 類型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이 地域 나름대로의 配置原則과 配置方法의 基準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안거리」와 「밖거리」는 그 안에 포함되는 空間이

註 19)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따른 민가의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991. 8월호, 양택훈외 2인에 의하면 중산간 마을인 봉성마을은 안길 역할을 하는 도로가 마을 안길을 통과하고 안길에 루프형 셋길로 연결 각집이 밀집되어 이원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안길과 셋길의 안쪽에 각집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2-8채가 공유하는 골목길이 잘 발달 되어 있다. 어촌 마을인 하예마을인 경우 일주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루프형 안길에서 2개의 나무가지 모양이 셋길에 의해서 크게 3개지역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오조 마을은 마을과 일주도로를 연결하는 안길이 마을의 중심을 루프형으로 통과하고 이 안길에 4개의 다른 안길이 서로 연결되면서 마을 전체의 대지를 부정형으로 구획하고 하예 마을과 비슷한 중심을 통과하는 안길과 셋길을 따라서 일원적으로 공간이 형성되고 있으나 봉성마을에 비하여 골목길이 잘 발달 되지 않았다.

20) 마을의 안과 밖의 경계로서 공간의 전환점을 말하며 어귀에서의 길은 반드시 구부러지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간변화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전곡부에는 나무등을 심어 어귀의 징표로 삼는다.

21) 안길이 마을 전체가 사용하는 길이라면 몇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동네가 사용하는 것이 셋길이다. 이는 동네만이 사용하는 위계가 작은 공공 공간으로 공동우물, 빨래터, 공동작업마당 등이 모이며 각 셋길을 중심으로 하나의 동네 영역이 형성된다.

22) 골목은 가장 작은 단위의 이웃이 연결되어 있는 길로써 이 길에는 보통 1-3채의 집이 있다.

23)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길로써 마을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은 외부 교통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큰길을 마을 밖으로 지나도록 하고 있으며 마을로 들어오는 교통은 큰길에서 나누어져 들어오게 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마을의 영역성을 확고히 한다.

24) ○「안거리」는 안채 또는 본채  
○「밖거리」는 바깥채로서 안채와 마주 앉은 형  
○「모거리」는 바깥채로서 본채와 직각으로 놓은 형



비교적 規則性이 있지만 그 외의 建物들은 서로 혼합되어 다양한 名稱으로 불리워진다.

한편 民家の 各棟 構成의 配置는 道路에 인접한



<그림 4-3> 民家の 配置類型

入口와의 關係, 日照條件, 垜地形態 등에 의해 決定된다. 특히 民家の 方位는 上記條件 외에 向, 坐向 등을 고려하여 決定하는데 그 要因은 地形, 地勢, 水文, 高度, 緯度方位角, 視角方向 또한 濟州特有의 바람과 風水地理說 등에 의하여 많은 影響을 받아왔다.

調査結果 調査地域內 民家の 向은 住居空間인 안채의 경우 더 重要시 되고 있고 안채의 向은 日照, 採光, 通風 등이 가장 유리한 東向, 南向에 集中되어 있으며 民家の 棟 配置는 마당을 中心으로 안채와 바깥채가 평탄한 地形을 그대로 利用하여 配置되고 있어서 바닥의 높고 낮음으로 인한 空間의 강한 位階性은 갖고 있지 않다. 傳統民家와 改良民家 모두 2棟 또는 3棟 構成이 많고 안채의 정면에 위치한 마당을 둘러싸는 配置形態인 「ㄱ字型」과 「ㄷ字型」이 대다수이며 建物垜地가 협소할 수록 단순한 配置形態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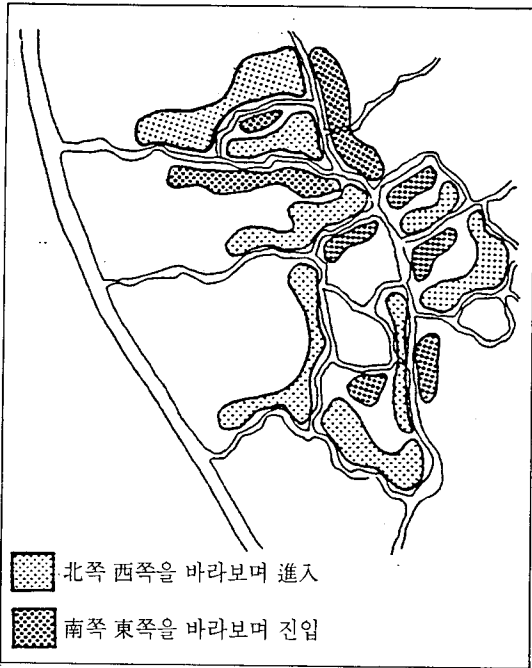
그리고 道路에 의한 民家에의 進入方式은 안채의 정면을 향해 進入하는 方式이 20 / 76戶, 안채의 부속이 있는 側面을 향해 進入하는 方式이 26 / 76戶, 그리고 기타측면을 향해 進入하는 方式이 30 / 76戶로 정면 이외의 多樣한 進入方式을 취하고 있다.

또한 作業空間으로서의 마당空間을 최대한 確保하기 위하여 建物을 垜地境界선에 가깝게 配置하고 있는데 특히 부속건물인 경우는 向을 重要시 여기기 보다는 作業條件에 유리하도록 配置되고 있으며 거의 地界線에 붙여 配置되고 있다.

그리고 1960年代 以後 改造, 改築 등이 進行되어 垜地內의 建폐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地域에서는 별도의 倉庫新築보다는 바깥채 또는 헛간 등의 空間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調査地域에서의 家屋配置에서 안, 밖거리 配置形態는 안채를 中心으로 하여 별채가 前面에

註 25) 제주도지 하권 p617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대정읍에서 성산면에 이르는 남제주지방은 이상적인 가옥의 배치방향인 남향가옥이 대부분이지만 이와는 달리 한경면에서 구좌면에 이르는 북제주지방은 남제주지방과는 전혀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상적인 가옥의 배치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배산임수의 입지를 선택할 경우라면 북제주지방에도 자연스럽게 북향가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향가옥은 별로 없고 동향과 서향 가옥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북향가옥은 종래부터 풍수설과 습관상으로 흉방일 뿐 아니라 겨울에 편북풍계의 풍상지역으로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북향가옥을 건립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북제주지방은 가옥배치의 방향이 지형, 풍향, 일사량 등의 자연적 조건외에 방위에 대한 김홍습관등의 제요인이 작용되어 동향 및 서향이 보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4〉 길에 의한 民家の 進入方向

위치하였던 것이 一般的이었으나 60年代 以後 近代化 및 家族構成, 傳統的인 生活方式의 變化 등으로 前面보다는 本동과 인접한 側面으로 이동되고 있으며 本동의 室內面積 增加로 側面길이 가 擴大되면서도 傳統的인 「三間型」은 高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建物の 配置와 마당의 性格은 이 地域 傳統民家의 一般의 形態이나 最近에 建築되는 世帶에서는 「밖거리」의 傳統的 存在意味가 약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建物配置 역시 傳統的 規則性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解析된다.

### 4-3. 住居空間의 平面形態

調査地域內 家屋의 平面의 特性을 알아보기 爲 하 原形平面을 分析한 結果 「작은방이 없는 3칸 집」<sup>26)</sup>이 대다수이며 그 다음으로 「부엌내형의 3칸 집」<sup>27)</sup> 그리고 「2개의 高광이 있는 3칸 집」 등의 순으로 分布되어 있다. 이러한 現象은 1次 調査地<sup>28)</sup>와의 比較가 可能한데 中山間地域인 鳳成마을에서는 原形自體가 「3칸집의 중마루형」<sup>29)</sup>이 대다수이나 4.3事件 以後 移住하여 이루어진 民家에서는 「부엌내형의 3칸집」이 一般의이다. 그리고 海岸地域에 위치한 하예마을은 湄照 마을과 같은 「작은방이 없는 3칸집」에서 變化된 平面形態로 나타나고 있으며 各室의 變化形態는 傳統的인 高광공간<sup>30)</sup>의 寢室로의 變化 및 高광空間을 부엌근처로 移動하고 있는 點등 1.2차 調査地域 모두 原形만 다른 類 같은 類型으로 變化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개의 高광을 保有하고 있는 空間構成은 1.2次 調査地域 中 湄照里에서만 볼 수 있는 現象이다. 한편 「부엌내형의 3칸집」에서 空間의 機能分化 傾向은 1次 調査地域에서는 高광空間의 移動 또는 消滅로 高광空間이 寢室로의 機能分化가 이루어지면서 부엌+마루+방(3개)으로 空間構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次 調査地域에서는 高광空間은 現存하고 부엌空間이 寢室空間으로 機能分化되면서 高광+마루+방(3개)으로 空間構成이 이루어지고 부엌空間은 別棟으로 移動하는 傾向을 볼 수 있다. 그러나 最近에 改修, 改築되는 世帶에서는 1, 2次 地域 모두 비슷한 부엌+마루+방(3개)의 空間構成이 一般的의이다.

또한 큰구들<sup>31)</sup> 空間과 窓門의 變化가 다른 空間에

註 26) 평면은 단형으로 장변쪽을 전면으로 삼으며 전면의 길이는 보통 9.3m이고 측면의 길이는 5.4m 내외이다. 각변 길이의 비는 보통 황금비(1:1.168)에서 1:2사이의 비례를 갖으며 평면구성은 마루를 중심으로 좌측은 정지, 우측은 앞으로부터 난간, 구들 고광과 방 좌측에 굴목으로 배치되어 있다.  
 27) 정지공간의 내부에 작은구들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상방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한 형태로 외벽과의 사이에 생기는 공간은 부엌의 되어 난방공간이나 수장공간으로 이용된다.  
 28) 1988. 5. 1-8. 14기간에 걸쳐 본 논문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 연구된 봉성마을과 서귀포시 하예마을을 말하며 『제주도 민가의 주생활 특성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란 제목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5권 4호(1989. 8)에 기 발표 하였다.  
 29) 한칸형 정지공간의 작은방 일부가 충분할하여 상방과 작은구들사이에 생기는 공간에 마루를 깔아 중마루 공간을 구성한 것이다. 상방에 설치된 장방은 다른 평면형과는 다르게 중마루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마루는 부엌의 일부가 되어 부엌공간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부엌내부의 기능을 분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0) 주로 곡물과 부엌용품, 식기등을 보관하는 수장공간으로서 흙바닥이거나 우물마루의 바닥에 벽은 토벽이고 천정은 노출반자이며 환기를 위한 한 두개의 작은 창을 내고 상방에서 두쪽의 판문으로 통하도록 되어 있다.  
 31) 큰구들은 일반적으로 다른구들보다 크며 고광과 인접해 있는 방을 큰구들이라 한다.

비하여 느린것은 同一하나 마루 後面 窓門의 變化는 1次調査地域에서는 窓 보다는 門이 선호되고 2次調査地域은 門 보다는 窓이 선호되는 地域의 特性도 엇볼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近代化의 影響과 관계가 있으며 일주도로변 마을이 中山間 마을보다 離農現象이 적고 近代化의 速度가 빠름을 알 수 있다.

## V. 結 論

研究의 對象地域인 吾照 마을은 半農半漁形態의 전형적인 農漁村 마을로서 自然的 環境要因과 人文社會의 環境要因을 토대로 마을의 形成要因 및 過程, 空間의 特性을 分析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마을의 形成은 당초 現在 마을 동북쪽의 안가름일대와 모살동산<sup>32)</sup>에서 시작되었으나 壬辰倭亂을 前後하여 왜구의 侵入과 海風의 피해로부터 스스로 保護하기 위하여 現在의 위치로 옮겨진 것이다.

2) 이 마을의 상징적인 식산봉은 西北風을 막아 주어 마을에 아늑한 분위기를 形成해 주고 정서적인 環境을 제공하는 등 陰·陽으로 影響을 미치고 있다.

3) 近代化의 影響으로 전래의 세시풍습 등이 最近 사라져가고 있으나 포제와 영등굿 등은 아직도 마을의 풍성과 繁榮을 비는 마을축제로서의 役割을 담당하고 있으며 堂신앙은 信仰의 行爲로서 뿐만 아니라 이웃마을과의 友好와 協力을 다지는 機會로도 活用되고 있다.

4) 마을의 通過道路인 큰길은 마을 상단으로 우회시킴으로써 可能한 한 마을의 프라이버시를 確保하려고 하였고 基本的으로 마을은 氣候나 外部人에 대하여 防禦的이고 마을 固有의 領域性을 維持하고 있으며 5개의 어귀를 通하여 안길로 連結되고 있다.

5) 마을은 同族部落의 特性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家屋의 울타리를 담으로 구획한 것은 家屋內의 필수적인 프라이버시를 위한 空間確保의

側面보다는 自然에 순응하기 위한 方法의 側面으로 解釋되며 이는 곧 自然的 環境要素가 生活行態 및 住居의 形態를 決定하는 重要한 要素임을 나타낸다.

6) 氣候와 관련한 마을의 配置는 대부분의 家屋이 東向과 南向의 配置를 취하고 있으며, 調査對象 全家屋이 자연형 조절에 유리한 形態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研究方向은 보다 具體的인 마을의 原形保存 및 그에 관한 研究와 努力이 絶실히 要求된다고 하겠으며 現代의 住居建築에서 傳統의 繼承에 관한 方向을 設定하기 위한 계속적인 研究가 필요하다고 思料된다.

## 參考文獻

- 1) 田耕培, 韓國農村住宅 및 農村聚落 構成에 關한 建築計劃의인 研究, 漢陽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74.
- 2) 濟州道, 濟州道 文化財 및 遺蹟 綜合調查 報告書, 1973.
- 3) 濟州道, 濟州道誌, 1982.
- 4) 吳洪哲, 聚落地理學, 教學研究社, 1989.
- 5) 洪慶姬, 村落地理學, 法文社, 1988.
- 6) 徐尙文, 建築. 都市計劃造景을 위한 調查分析 方法, 庭于文化社, 1987.
- 7) 吳成贊, 濟州의 마을 - 吾照里, 圖書出版 반석, 1990.
- 8) 東南國民學校: 내고장 鄉土調查 - 우리조상의 삶, 1986.
- 9) 嚴鵬勳, 韓國 農村마을의 屋外空間 體系 變化에 關한 研究, 韓國造景學會誌 18(2): 31-43.
- 10) 尹英活 外, 韓國傳統 마을의 空間 構成과 民家庭園樣式, 韓國造景學會誌 18(2): 95-110.
- 11) 梁澤訓, 濟州島 民家의 住生活特性에 關한 建築計劃的 研究, 大韓建築學會 論文集, 5(4): 123-132.

註 32) 모래가 많던 언덕으로 이곳에서 유골과 옛날 그릇들이 나온적이 있다고 하며 현재는 성산수고가 지어져 있다.